

PEOPLE & PEOPLE

꿈을 이루는 사람들

DCTY(Dream Comes True for You) 대표이사

권성윤



Q. DCTY가 리틀뱅크, 캐너비, 오모로이, 캡틴파파 등의 아동 북 브랜드와 맑은기림이라는 도서출판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스쿨교재를 출판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2004년도에 샘물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권유로 어떤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기독교학교를 시작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샘물초등학교 설립을 준비하던 당시 저는 교재개발 팀장이었는데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담당 목사님이 일반학교 교재를 사용해서 기독교학교를 운영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기독교학교에서 일반학교 교재를 사용한다는 것이 무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담당 목사님이 기독교 학교 교재가 없다는 말씀에 옆에서 누군가 커리큘럼을 만들수가 있다고 하기에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해보라고 하시죠. 라고 말했다가 그 때부터 붙들려서 1년간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비로소 많은 기독교 커리큘럼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처 소개되지 못했지만 미국에 좋은 커리큘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중 일부를 가지고 샘물초등학교 커리큘럼을 짜게 됐고, 그 때 만든 커리큘럼을 지금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독교 학교 커리큘럼이 짜여진 것은 그 때가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 때가 계기가 되어 지금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우연한 기회에 책임을 맡게 됐다고 하셨는데 다른 큰 동기는 없으셨나요?

어찌다가 하게 되었어요. (하하) 출판을 하게 된 것은 그 때 보니까 의외로 책이 있어도 수업 전반에서 실용적으로 쓸만한 책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은 이렇게, 책임기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처럼요. 물론 학습법들을 다룬 이론서는 많았지요. 그런데 교사들을 훈련시키려면 책이 필요했고 책들을 번역하다 보니 저만 보기가 아까워서 출판을 하게되었습니다. (적자를 봤지만요^^)

그 때 공부를 많이 했죠. 그 후 기독교세계관이 담긴 커리큘럼을 짜고, 수업을 하다보니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은 들었지만요^^

Q. 다양한 기독교 교육 서적이 출판되고 있는데, 추구하는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더불어 다른 사역들도 하고 계신데 알려주세요.

저희 책에 소개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저희 책에 소개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기독교 홈스쿨 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와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책과 교재를 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통합적 사고를 가진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저의 임무입니다.

교육에 관련한 책들을 계속 출판할 계획인데 결국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도 바뀌지 않고 한국 기독교가 바뀔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교회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현재 한 선교 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의 수가 20%선인데 반하여, 고등학생 35%, 대학생은 4% 정도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이상태로 1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의 교인 수가 절반으로 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없을 수밖에 없다는 끊임없이 가르치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말할테니까요. 아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학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기에 이렇게 되는가?’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다른 사역으로는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을 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하하) 책들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공교육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에 컨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책과 교재를 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통합적 사고를 가진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지의 임무입니다.

런스를 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교육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나이가 되면 집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되었고 고대 교수님 두 분이 자원해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때 놀라운 발견을 했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홈스쿨링 아이들은 수업을 하지 않으니깐요. 부모들은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offline 모임에서 계속 다뤄주려고 합니다.

Q. 사명감이 투철하신데, 직접 교육 현장에 설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하지만 제 분야가 아니어서요.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커리큘럼을 분석하면서 보니, 현재 있는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겠더라고요. Reading Level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행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래의 코스를 바꿔야 해요. 코스이기 때문에 밑에서 촘촘히 쌓아와야 위에서 할 수 있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야기가 DCTY로 시작해서 결국은 교육으로 온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요?

결국 사회의 리더를 키우는 것인데 리더가 꼭 앞에 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 기독교인이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를 변론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변론한다는 것은 수사학인데, 변론하려면 자기 논리가 확실해야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모범답안을 주고 외우라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생각하고 멘토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화하고 만들어가는 문화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문화를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려면 교육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재 교회의 모습, 리더들을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은것 같고, 지금 청소년들을 잘 가르치면 10년 후면 그 아이들이 리더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아이들이 리더가 되면 굉장히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청소년 사역에 온힘을 쏟는 것이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좋은 전통들을 가르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전통을 죽일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세운 기둥들에 대해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했던 역할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없었을 것이거든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미국은 독립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에 따라 가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김구, 안창호, 유관순 모두 보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고 우리나라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덕분인데 우리는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교회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질 수 없는데 그러한 내용이 담긴 위인전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걸 모르는 거죠. 이 일을 위해 한국 기독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활동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청소년사역)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학교를 하는 방향으로요. 대안학교, 기독교학교가 계속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학문적이 되어야 하는데 신학도 알아야 하고 세계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세계관을 전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와 관련하여 세계관 동역회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Understanding The Times 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여름에 2주씩 캠프를 합니다. 10가지 주제를 6가지 per-





spective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인데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는 책임입니다. 정확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화가 설명되어 있는데 각 perspective가 어떻게 각 주제에 사회에 반영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령운동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부딪치는 것은 정말 선명하게 기독교에서 접근하는 것은 두루뭉실하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접근법은 이전 우리나라 사회도 생활비, 교육수준도 높은 편인데 성숙한 사회로 가는데 못 맞춰간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주제를 각 perspective로 전달해주고 어떻게 투영되어 나오는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Q.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자녀분들을 홈스쿨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2005년부터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을 공부하다보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공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협력기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미국에는 많은 홈스쿨링 교재들이 나오고, 상당히 인정을 받거든요. 실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재를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과서와 홈스쿨링 교재는 차이가 많아요. 교과서는 위에서 나오는 지침에 맞춰서 쓰는데 부모들이 쓰는 교재는 구체적인 부분이 많고, 모양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게 됐고 이번에 아이들 진학도 잘 되었습니다.

Q. 아이들 스스로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좋다고 한 점이 있나요? 홈스쿨하는 아빠로서 자녀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직접 표현을 해요. 큰아이는 기독교세계

관 책을 다 읽고 대학을 갔거든요. 성경적 세계관 체계가 잡혀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을 받아요. 스스로 어려운 책들을 읽어내고, 둘째 아이도 국제학교에서 잘하고 있고, 집에서 배웠던 가치들을 학교에서 다 쓰더라고요. 막내도 홈스쿨링을 하는데 만족감이 큼니다.

아빠로서 별로 함께하지 못해요. 늘 미안한 마음이죠.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지만 작업해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아이스하키를 하고 교회 같이 다녀오고, 밥 같이 먹고, 주말 저녁에는 제가 밥도 해준답니다.(^^)

Q. 마지막으로 다양한 역할하시면서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쏟고 계신데 이러한 것을 해나가는데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 사역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한편으로는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백성은 나의 말로 가르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나의 자녀를 나의 말로 가르치겠다. 저는 그렇게 많은 기독교 교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고민을 합니다. “그만해야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움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좀 더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좋은 책은 참 많은데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마음을 합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데 뜻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